칼 럼

소통과 열린 행정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소통(疎通)은 어떠한 것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며, 뜻이 서로 잘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을 뜻한다. 선거할 때만 되면 후보들은 당선되면 주민과의 소통을 잘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한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들은 당선만 되면 선거 때 한 말은 다 어디로 가고 집무실 주변이 물리적 장벽인 문턱을 높이고 비서와 대변인의 장막을 쳐서 주민과의 소통이 멀어지게 한다.

지난해에 당선된 민선 제8기 지지체 단체장과 교육감은 당선된 후 주민 유권자와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가 반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현안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 소화하여 좋은 방안을 창출해야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창의와 창안을 받아들이는 단체장과의 소통 광장이 있어야 한다. 직접 단체장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간담회로 소통하여 경청할 수도 있으며, 단체장의 집무실 곁에 열린 만남의 상담실을 두어 시민들과 쉽게 만나 소통과 화합의 열린 행정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지자체 단체장의 집무실을 보면 대개가 2~3층에 있으나 전남에서는 나주시청, 목포시청의 시장실이 1층에 있으며, 광주에서는 남구청의 구청장실이 1층에 있어 주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을 펴고 있으며 1층에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남구청 도서관을 잘 이용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지방은 49년 만의 혹심한 가뭄으로 물 절약에 대한 창의력과 실천에 대한 주민 창의 자에 대한 소통의 공청회를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가정에서 물 소비가 많은 화장실에서 물통의 물 절약에 대해 5년간의 연구로 발명특허를 획득한 진월동에 사는 서영섭(94세 010-7510-2000) 씨의 물 절약정보를 가지고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을 탐방하면서 전했는데 지자체장과의 소통이 안 되어 주변 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쉬웠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물 절약은 중요한 현안 사업이므로 주민과 단체장이 이마를 맞대고 소통하여 묘안을 창출해야 하는데 주민 중에 물 절약에 대한 좋은 창안이 있어도 소통이 안 되는 곳에서는 빛을 볼 수 없다. 세종대왕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서민 출신 장영실 같은 발명가를 발굴해 기용했다.

민선 8기 교육감은 교육계 원로들과의 소통,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만남이 편리한 열린 교육청으로 변모하여 교육의 당면 문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전남 교육청이나 광주시 교육청은 비서진으로 인의 장막을 치고 소통을 어렵게 한다.

학교는 교권자인 학부모가 학교에 드나드는 것도 교문에 문지기를 두어 닫힌 학교 닫친 교육을 하고 있어 어렵게 한다.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자랑한 혁신학교 무지개 학교는 철저하게 닫힌 교육을 하고 있어 학부모나 외부 인사가 학교장과 소통하기 어렵다. 필자가 교육청을 탐방하여 교육감을 만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을 요구했으나 인의 장벽을 쌓고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만날 수 없는 교육감을 다시 만나려는 뜻을 접었다. 비록 필자만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 소통의 경우를 당한다면 교육감과의 소통을 접을 것이며 교육감은 민의를 떠난 독불장군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중에 학교 교육 계획과 2023년도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교육과정(教育課程)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부모의 의지 조사인 기저 자료에 있는 요구 사항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 창의 체험학습 과정에 한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으나 전임 교육감 때는 학교 재량으로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발달과업에 따른 한자 교육 내용은 빠져서는 안 된다. 민선 제8기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유권자 주민들이 자기를 선택할 때 소통이 잘되는 후보로 인정해서 선택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임기 4년 동안 주민과의 소통이 잘되는 열린 행정을 펴는 단체장이 되기를 바란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예방하자

기 고

허 진 여수경찰서 여문파출소 순경

전국 곳곳에서 세입자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사고가 속출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해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빌라왕"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빌라왕"사건의 수법은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자기 돈 한 푼 없이 임차인의 돈인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고, 그 집에 임차인들 들이는 방식을 3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이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 사기를 당했을 시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1. 24까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전국 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하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통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본다.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기 고

임 준 섭 강진소방서 성전119안전센터 소방사

'망우보뢰(亡羊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로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한자성어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화재예방! 우리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에 소방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골든타임 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초기에 연기를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 발생을 알려 빠른 대피 및 신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 한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법이나 이외의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인터넷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맞벌이 부부로 혼자서 집을 지키는 어린 자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안전을 선물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차량 화재 예방법

기 고

이 종 범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사람들은 흔히 화재라고 하면 주택, 공장 화재를 떠올리곤 하지만 차량 화재도 통계를 보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화재 중 하나이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화재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 기계적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방화, 가스누출 등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교통사고와 방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재는 구조 결함, 관리 소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 스스로의 세심한 주의와 차량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럼,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평소에 엔진오일, 냉각수, 점화장치, 배터리 등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생활화한다.

둘째,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 물질을 트렁크 혹은 실내에 싣고 다니지 않는다. 일회용라이터의 경우 태양의 복사열로 인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셋째, 차량 실내 또는 작업 및 주유중인 차량 주변에서는 흡연을 절대 금한다.

넷째,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만약의 화재에 대비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혹시나 모를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시 차량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필수품이므로 반드시 비치하여야한다.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인 열 또는 불꽃(발화원), 연소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연성물질(가연물), 그리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에서 열과 불꽃을 계속 만들어내고, 인화성이 매우 높은 휘발유(경유)와 각종 가연물을 싣고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화재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좁은 공간 안에서 신속한 대피도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차량화재를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안전점검을 생활화해서 차량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자.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